

### FTA 육성대책 마련 위한 대추 현장간담회



### 한국임업진흥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



###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현장 방문



산림청은 4월 12일 충북 보은군 보은산림조합에서 FTA 육성대책 마련을 위한 대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는 김남균 산림청 차장을 비롯해서 홍명세 중부지방산림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FTA가 임업분야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산림청은 FTA협상 동향과 대추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동섭)과 5월 3일 오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임업진흥원의 개원을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국임업 발전과 산업임정의 기조'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돈구 산림청장과 구길본 국립산림과학원장, 윤영균 북부지방산림청장 등 산림청 관계자와 이동섭 한국임업진흥원장·임업관련 학회와 대학 교수,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돈구 청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이 가진 막대한 가치를 산주들이 시장에서 되돌려 받는 체계를 만들고 산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을 수행할 것"이라며 "심포지엄을 통해 신속한 임산물 생산유통·임업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돈구 산림청장은 5월 11일 2013년 4월~10월까지 (6개월간) 순천만 일원에서 열리는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성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 청장은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최덕림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으며 조경공사, 정원공사, 수목원, 습지공사 현장을 둘러 본 후, 공사에 만전을 기하여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배봉리 지로제거지 산림복원 사업



동부지방산림청(청장 허경태)은 동해안 최북단 마을인 고성군 현내면 배봉리 지로제거지에 산림복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로 제거 작업으로 훼손된 지역에는 토사 유출 등으로 재해가 있을 수 있어 재해 사전 예방과 경관 조성을 위해 5억원을 들여 배봉리 일대 6.8㏊의 임야에서 산림 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관은 “황량한 지로제거지에 푸른숲을 가꾸어 원래의 경관을 찾고, 마을 주변으로 새로운 소득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백두대간, 유네스코자연유산등재 타당성 조사



산림청은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진 1400여㎢의 백두대간 중 남한 지역의 684㎢의 산줄기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두대간이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간직하고 있고 우리나라 10대강의 발원지를 품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실제로 백두대간은 국토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 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다. 여기에다 지형, 기후, 토양, 수문(水文) 등 자연환경과 동식물이 어우러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복합적인 3차원 공간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백두대간에 대해 보편적 가치의 평가기준 등 세계유산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논리를 마련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2 대한민국 귀농 · 귀촌 페스티벌



산림청은 귀농 · 귀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귀농 · 귀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전시 행사인 '2012 대한민국 귀농 · 귀촌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5월 4일부터 6일까지 47개 지자체와 20여 농림어업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200여 개의 전시부스를 마련하고 귀농 · 귀촌 희망자 등에게 각 지역의 귀촌 · 귀농 정책을 설명하고 특산품 · 축제 정보 등을 제공했다.